

일부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교내 · 외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문선정¹, 구인영¹, 최화영¹, 가경환^{2*}

¹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²경운대학교 경호학부

Study of On- and Off-Campu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me Regions

Seon-Jeong Moon¹, In-Young Ku¹, Hwa-Young Choi¹, Kyung-Hwan Ka^{2*}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wo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Protection Science,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실습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선하여 실습 후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충청지역 소재 대학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행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766부를 SPSS/Win18.0을 사용하여 최종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교내 · 외 실습경험군은 각각 59.7%, 57.4%이었고, 실습 장소는 치과대학 병원, 병(의)원급, 보건소 순이었다. 학제의 경우 4년제가 3년제 보다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습수행 요인에서 교내 실습만족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교외 실습만족도는 4년제가 3년제 보다 모든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실습시간과 실습수행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교내 · 외 실습경험에서 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실습수행, 실습시간, 실습환경, 실습내용 모든 요인이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 외 실습교육을 통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임상실습이 최적의 학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on dental hygiene students at colleges or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to increase the levels of practice for them and provide basic data that could improve their major satisfaction after practic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December 2012 to April 2013 and 766 questionnaires, except for 13 containing insincere responses, were finally analyzed using SPSS/Win18.0. The on- and off-campus practice groups formed 59.7% and 57.4%, respectively. The most frequent place for practice was university dental hospitals, followed in order by hospitals/clinics and health centers. University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on-campus practice in terms of factors, such as practice contents, practice time, and practice performance than those at three-year colleges. The students in the higher grad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practice time.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also more satisfied with off-campus practice in terms of all the factors than those at three-year colleges. The students in higher grad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practice time and practice performance. The on- or off-campus practice group was generally mo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than the non-practice group, and each of the factors-practice performance, practice time, practice environment, and practice contents-significantly affected the major satisfaction. Th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plan and provide satisfactory education based on an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students so that they can take pride in their major through on- and off-campus practic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guidelines for clinical practice and efficient programs so that clinical practice can create the optimal learning situation.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jor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Kyung-Hwan Ka(Kyungwoon Univ.)

Tel: +82-10-8705-0030 email: khka@ikw.ac.kr

Received October 2, 2014 Revised (1st October 24, 2014, 2nd November 3, 2014, 3rd November 5, 2014) Accepted November 6, 2014

1. 서론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1]. 구강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로서 구강건강을 제외한 건강은 완전한 건강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구강건강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은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1,2]. 이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을 모두 겸비한 전문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더욱더 요구되고 있으며, 업무범위 또한 세분·전문화 되고 있다[2-4].

치과위생사는 예방치치 및 진료협조 업무를 비롯하여 구강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치과의료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구강관리의 관심 증가와 구강보건활동 등을 통해 그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능력 있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2,5].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시설 및 교수진의 구성요인에 의하여 교육내용이 해당분야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각 교과목들의 임상현장에서의 역할과 국가시험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황[6]은 치위생과 교육과정을 기초분야, 예방공중분야, 임상분야, 교육연구분야로 구분하였다. 국가시험원에서 제시한 국가고시 관련 교과목 중 기초분야의 교과목은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예방공중분야의 교과목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스켈링, 불소도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임상분야는 진료협력자로서 진료보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1991년과 2001년 동안에 국가고시의 개정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수의 과목을 국가시험과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 교육과정과 임상실무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였다[7].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치과진료의 전반적인 과정과 업무내용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론으로 얻은 지식이 현장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8,9].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없으면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힘들므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10]. 특히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재학 중에 교육은 전문지식 및 직업에 대한 프로정신은 물론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11,12]. 그러나 전문직 교육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론교육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교내·외 임상실습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2,13].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접해보는 임상실습은 치위생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 교육과정이다[14]. 치과위생사로서의 역할 습득, 이론 학습에 대한 이해력 증진, 병원의 분위기 등을 경험함으로써 치과진료보조 및 환자대처 등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15]. 그리고 체험을 통해 이론만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을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부분들과 통합시켜 이해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지적받은 부분들을 보완, 노력함으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즉 이론으로 얻은 지식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 그 기능이 좀 더 발휘될 수 있다[5].

교내·외 실습교육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각 실습기관과 실습담당자 간의 차이가 다양하며, 실습현장이 완전히 통제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경험 부족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 자신감 위축은 전공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14,16]. 임상실습에서의 경험은 실습 후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잘못된 선입견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전공에 대한 흥미 감소, 학업 저하 등으로 학과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17]. 따라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최적의 실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의 내용들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8].

박[14]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실습교육을 실시해줄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양[15]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실습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박[19]의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와 김[20]은 임상실습 후 이론과 실제의 차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전공 선택 및 정체성의 혼란 등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강[2]은 임상실습만족도가 전문직으로의 자아개념 형성과 업무수행능력, 직무만족도, 문제해결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내·외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파악하여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실습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사하여 실습 전 보다 실습 후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교내·외 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임상실습에 관한 교육지침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충청지역 소재 대학(3년제; 6개교, 4년제; 6개교)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해당 학과에 협조를 구한 뒤, 무선으로 900부(3년제; 500부, 4년제;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3년제; 431부, 4년제; 348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3부를 제외한 분석 가능한 766부(3년제; 424부, 4년제; 34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설문 문항은 강[2]의 연구와 김과 고[2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구성 내용은 일반적 특성 2문항, 교내·외 실습경험 3문항, 실습만족도 14문항, 전공만족도 12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관한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신뢰도 검사 결과, 실습만족도는 .852~.864, 전공만족도는 .855~.866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택되었다[Table 1, Table 2].

[Table 1]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ractice satisfaction

Question	Contents	Environment	Time	Performed
Practice time properly	.842			
Practice time amount	.812			
Preparing properly	.611			
Help to learn	.607			
Absolute necessity		.791		
Help perform the role		.776		
Cause interest		.594		
Help in confidence		.516		
Students may fit			.796	
Select preferred places			.787	
Various examples			.518	
Applied learning				.751
Apply knowledge				.690
Focus on training				.594
Cronbach's α	.864	.861	.857	.852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ajor satisfaction

Question	Lecture	Major	Facility	Department
Aptitude match	.883			
No regret theory	.837			
Interested in curriculum	.754			
Facilities meet		.861		
Comfortable facilities		.825		
Excellent facilities		.821		
Teaching how satisfied			.827	
Use media appropriate			.790	
Contents readily explained			.768	
Social life with glass				.849
Popular science				.802
Pride that				.757
Cronbach's α	.855	.866	.861	.861

2.3 분석방법

회수된 자료는 SPSS/Win18.0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 처리하였다. 먼저, 실습만족과 전공만족의 동질적인 특성을 찾는 차원분류를 위해 요인 분석(factor analysis)과 요인화된 속성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Cronbach's α)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교내·외 실습경험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내·외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 교내·외 실습경험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독립적 그룹 t-검증(Independent Group t-test)과 일원변량(One-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 검증을 위하여 사후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하였다. 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는 3년제가 55.4%, 4년제 44.6%로 3년제가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51.8%, 2학년 20.2%, 1학년 14.8%, 4학년 13.2% 순이었다[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tem	Division	N	%
Educational system	3 years	424	55.4
	4 years	342	44.6
Grade	Grade 1	113	14.8
	Grade 2	155	20.2
	Grade 3	397	51.8
	Grade 4	101	13.2

by frequency analysis

3.2 교내 · 외 실습경험도

교내 · 외 실습경험에서 교내 실습 경험군이 59.7%, 교외 실습 경험군은 57.4%이었고, 실습 장소는 치과대학 병원이 31.9%, 병원급, 의원급 치과 각 31.2%, 보건소 5.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Practice experience in a intramural suburban

Item	Division	N	%
Intramural practice	Experience	457	59.7
	Non experience	309	40.3
Suburban practice	Experience	440	57.4
	Non experience	326	42.6
Place of practice	Dental university hospital	203	31.9
	Dental hospitals	199	31.2
	Dental clinics	199	31.2
	Public health center	36	5.7

by frequency analysis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내 실습만족도 차이

학제와 학년에 따른 교내 실습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제의 경우 실습만족 요인 중 실습내용과 실습시간, 실습수행에서, 학년은 실습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5),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습수행 모두 4년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의 경우 사후검증(Scheffe test) 결과, 실습시간에서 4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보다 높아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이 높을수록 실습내용, 실습환경, 실습수행 요인 역시 다소 만족도가 높았다[Table 5].

[Table 5] Intramural practice satisfaction Mean±SD

Item	Division	N	Intramural practice			
			Contents	Environment	Hours	Performed
Educational system	3 years	318	3.47±0.62	3.51±0.67	3.20±0.91	3.67±0.67
	4 years	139	3.72±0.54	3.62±0.60	3.63±0.66	3.84±0.58
	t		-3.59(.000)	-1.73(.083)	-5.49(.000)	-2.82(.041)
Grade	Grade1 ^I	3	3.75±0.65	3.45±0.68	3.04±0.94	3.63±0.75
	Grade2 ^{II}	48	3.82±0.80	3.60±0.58	3.55±0.50	3.79±0.74
	Grade3 ^{III}	329	3.88±0.38	3.71±0.80	3.57±0.67	3.83±0.55
	Grade4 ^{IV}	77	3.92±0.50	3.75±0.90	3.87±0.82	4.01±0.72
	F		1.96(.101)	1.75(.138)	12.85(.000)	2.21(.058)
	Scheffé		-	-	IV> I III	-

by t-test, one-way ANOVA, p<.05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외 실습만족도 차이

학제와 학년에 따른 교외 실습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제의 경우 실습내용,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수행 모두에서, 학년에 따라서는 실습시간과 실습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5), 4년제가 3년제보다 실습만족 모든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학년의 경우 사후검증(Scheffe test) 결과, 실습시간에서 4학년과 3학년, 2학년이 1학년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실습수행도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이 높을수록 실습내용, 실습환경 요인 역시 다소 만족도가 높았다[Table 6].

[Table 6] Suburban practice satisfaction Mean±SD

Item	Division	N	Suburban practice			
			Contents	Environment	Hours	Performed
Educational system	3 years	317	3.72±0.62	3.57±0.73	3.29±0.91	3.73±0.74
	4 years	123	3.92±0.48	3.75±0.55	3.71±0.61	3.88±0.54
	t		-2.79(.007)	-3.12(.002)	-4.31(.000)	-2.04(.042)
Grade	Grade1 ^I	23	3.82±0.50	3.53±0.73	3.18±0.93	3.67±0.77
	Grade2 ^{II}	22	3.84±0.64	3.63±0.58	3.61±0.63	3.86±0.55
	Grade3 ^{III}	295	3.93±0.49	3.75±0.50	3.69±0.52	3.88±0.52
	Grade4 ^{IV}	100	4.06±0.41	3.78±0.44	3.84±0.59	3.94±0.41
	F		1.53(.207)	1.41(.240)	10.69(.000)	2.93(.021)
	Scheffé		-	-	IVIII> I	-

by t-test, one-way ANOVA, p<.05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학제와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제의 경우 시설만족에서, 학년은 전공만족도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5$), 3년제가 4년제보다 높았으며, 학년의 경우 사후검증(Scheffe test) 결과, 강의만족과 시설만족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4학년보다 높았고, 전공만족은 1학년이 3학년, 4학년보다, 2학년이 3학년 보다 높았으며, 학과만족은 1학년이 3학년, 4학년보다 높아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Table 7].

[Table 7] Major satisfaction by general feature

Item	Division	N	Major satisfaction			
			Lecture	Major	Facility	Department
Educational system	3 years	318	3.76±0.57	3.47±0.77	3.85±0.69	4.03±0.66
	4 years	139	3.74±0.69	3.55±0.77	3.72±0.91	4.09±0.67
	t		.69(.486)	-1.43(.154)	2.64(.008)	-1.31(.190)
Grade	Grade1 ^I	113	3.84±0.55	3.79±0.68	3.87±0.69	4.27±0.61
	Grade2 ^{II}	155	3.75±0.65	3.60±0.77	3.81±0.83	4.11±0.60
	Grade3 ^{III}	397	3.72±0.59	3.40±0.77	3.72±0.75	3.99±0.68
	Grade4 ^{IV}	101	3.61±0.79	3.38±0.83	3.44±0.98	3.91±0.69
	F		6.73(.000)	12.23(.000)	16.79(.000)	9.25(.000)
Scheffé	I II III > IV		I > III IV II > III	I II III > IV	I > III IV	

by t-test, one-way ANOVA, $p<.005$

3.6 교내·외 실습경험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내·외 실습경험에 따라 전반적으로 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는데, 교내실습 경험에서는 전공만족, 교외실습 경험에서는 강의만족, 전공만족, 학과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만족도 높았다[Table 8].

[Table 8] Major satisfaction by practice experience of the intramural and suburbs Mean±SD

Item	Division	N	Major satisfaction			
			Lecture	Major	Facility	Department
Intramural practice	Yes	457	3.77±0.62	3.64±0.71	3.78±0.82	4.03±0.59
	No	309	3.73±0.64	3.39±0.79	3.74±0.85	3.99±0.69
	t		.81(.416)	3.36(.000)	.47(.638)	.37(.712)
Suburban practice	Yes	440	3.79±0.64	3.69±0.77	3.79±0.85	4.12±0.62
	No	326	3.62±0.62	3.44±0.76	3.75±0.83	4.02±0.67
	t		2.17(.031)	3.35(.000)	.47(.684)	2.73(.007)

by t-test, $p<.005$

3.7 실습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내·외 실습만족의 실습수행($\beta=.328$), 실습시간($\beta=.229$), 실습환경($\beta=.155$), 실습내용($\beta=.177$) 모든 요인이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전공만족 전체변량의 약 52.6%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습내용은 전공만족($\beta=.181$), 학과만족($\beta=.171$), 강의만족($\beta=.135$) 요인에, 실습환경은 강의만족($\beta=.158$), 전공만족($\beta=.142$), 시설만족($\beta=.131$) 요인에, 실습시간은 시설만족($\beta=.327$), 강의만족($\beta=.264$) 요인에, 실습수행은 학과만족($\beta=.333$), 전공만족($\beta=.290$), 강의만족($\beta=.207$), 시설만족($\beta=.206$)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전공만족 전체 변량의 강의만족 38.5%, 전공만족 29.3%, 시설만족 37.9%, 학과만족 29.0%를 설명해주고 있다[Table 9].

[Table 9] Influence satisfaction of practice on the major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Lecture	Major	Facility	Department	Total
	B(Beta)	B(Beta)	B(Beta)	B(Beta)	B(Beta)
Contents	.160 (.135***)	.262 (.181***)	.120 (.077)	.216 (.171***)	.190 (.177***)
Environment	.167 (.158***)	.182 (.142**)	.181 (.131**)	.058 (.051)	.147 (.155***)
Time	.264 (.264***)	.042 (.039)	.378 (.327***)	.078 (.083)	.184 (.229***)
Performed	.226 (.207***)	.384 (.290***)	.294 (.206***)	.386 (.333***)	.322 (.328***)
R ²	.385	.293	.379	.290	.526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p<.0001$ **, $p<.01$

4. 고찰

최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치과진료는 더욱 전문화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에게 보다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임상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현장적응력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만족을 통해 자기 직업에 대한 개발이나 자아성장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개념으로 현장적응력이 높은 학생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전공분야로의 취업가능

성이 높으며, 자신의 직업경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8,22]. 이처럼 임상실습 교육은 모든 교과와 통합체로서 강의실의 이론교육을 보충·통합하고, 활용하여 기본이론의 원리를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전문적 가치를 습득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신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13,14].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실습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선하여 실습 후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교내·외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분석 검토하였다.

교내임상실습은 학기 중 학교내에서 진행되는 실습으로 임상실습교과와 관련된 이론적 지식과 실기능력을 통합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초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내용의 실습이 진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치위생(학)과 실습교과목 관련 연구는 교외실습 관련 만족도와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며, 교내에서 진행되는 실습교과목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교내 실습만족도 요인 중, 학제의 경우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습수행에서, 학년의 경우 실습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년제가 3년제보다,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교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전단계실습 교과목의 만족도를 조사한 장 등[23]의 연구에서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4.29점, 실습운영은 3.30점으로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실습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 등[24]의 연구에서도 타하부영역인 임상실습지도(3.46), 환경(3.31), 평가(3.23) 및 시간(3.16) 등에 비해 실습내용(3.49)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실습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박과 이[25]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환경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백 등[24]의 연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교내임상실습에 관한 장과 김[26]의 연구에서는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실습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장과 김[26]의 연구에서는 치과경험이 있는 학생이 교내임상실습에서 긍정적인 참여태도를 보였고, 실습 평가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치과경험에 의한 익숙함과 자신감, 사전지식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김과 가[27]는 역할 체험을 통한 학습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

나 지식을 얻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 대상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교내임상실습의 경우 최소한의 임상과목을 이수한 2학년 초반에 시행되는 실습인 관계로 저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하거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실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실습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낯선 기구와 기자재의 사용, 이론적인 지식부족, 실습운영의 부적절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실습에 불만족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3년제의 경우 단기간에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므로 실습시간이 부족할 것이며, 3년제를 대상으로 임상실습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장 등[23]의 연구에서도 기구재료와 1:50으로 진행되는 과다인원으로 인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점차적인 기자재의 보완 및 확충과 과다인원으로 진행되는 실습수업의 경우 분반수업진행, 교수 수의 확대, 시수의 분배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내임상실습 운영 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의 의료장비와 기자재 확충, 충분한 실습시간의 확보, 소규모 실습 운영, 실습의 다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실감 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실습을 구성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실습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외임상실습은 한정된 교내실습만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므로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 및 실습관련 지식을 종합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등의 임상현장에서 전반적인 진료사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방학기간이나 학기 중에 진행된다[26]. 본 연구에서 교외 실습만족 요인 중, 학제의 경우 실습내용,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수행 모두에서, 학년에 따라서는 실습시간과 실습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년제가 3년제보다, 학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구와 임[28]의 연구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척도에서 3.17점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2.86점보다 높았고, 한[29]의 연구에서도 4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 3년제 간호대학생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관되었다. 구와 임[28]의 연구와 선행연구[29,30]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환

경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실습시간이었다. 이는 3년제의 경우 단기간에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므로 일부 분야의 실습시간 부족에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실습환경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실습기관에 따른 환경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임상실습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습환경은 실습만족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임상실습목표와 교육과정을 따르면서 학생 편의를 도모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구와 임[28]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실습 경험이 쌓이고, 이에 따라 적응과 만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황[31]은 현장실습 시 가장 힘든 점은 낮은 기구나 장비 조작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교내실습에서 기자재 및 환경이 일반병원 수준으로 다양하게 확보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학교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의 기자재를 확충하고, 실습내용의 재구성, 효율적인 교수지도방법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김[32]은 임상실습 시간 수가 많을 때, 실습의 기회가 다양할 때, 교통의 편리성 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장과 김[26]의 연구에서는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평가에 관한 만족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양[33]은 임상실습평가의 불만족 요인으로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없는 것과 각 진료과의 평가기준을 알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불만족의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현장임상실습의 적극적인 참여태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 높은 실습지를 발굴하고, 학생과 산업체의 요구분석을 반영한 후 실습지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임상실습이 학교와 실습기관의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실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대학병원 및 치과병(의)원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기준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학제의 경우 시설만족, 학년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년제가 4년제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3, 4년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김 등[34]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평균 3.51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5]에서는 3.44점이었으며, 구와 임[28]의 연구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11점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3.0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김[36]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아짐을 보고하였고, 이[37]의 연구에서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의 전공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학제와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교내·외 실습경험에 따라 전반적으로 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이 등[38]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전 전공취업을 희망한 학생이 82.7%에서 임상실습 후 92.2%로 증가하였고, 임상실습이 전공취업 여부와 취업기관과 분야 등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Christie 등[39]의 연구, 실습교육과 진로선택에 대한 타 분야의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40,41].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구와 임[28]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와 중등도의 순 상관관계에 있었고,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전공과 관련된 임상실습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관해 조사한 문과 이[35]의 연구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실습은 미래 간호사로서의 활동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성[4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유의한 관계에 있으며,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공통적인 결과는 임상실습 또는 교육실습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지만 실습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진로의식에 긍정·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내·외 실습만족의 실습수행($\beta=0.328$), 실습시간($\beta=0.229$), 실습환경($\beta=0.155$), 실습내용($\beta=0.177$) 모든 요인이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43]의 연구에서 교내실습이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하였고, 정과 이[44]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만족도 즉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의 만족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박과 이[45], 장과 송

[46]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임상실습은 실무와 현장 적응능력, 실질적인 의료기술의 습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프로그램 강화, 임상실습 교육방법 개선, 학습한 이론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실습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론을 실제로 경험하고 통합해 볼 수 있는 실습장소가 제공되어야 하고,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학교와 의료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상호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며 그 범위 내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의체 성과 운영이 이루어질 때 임상실습 만족도는 증대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조사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자의 임상실습기관에 따른 만족도를 반영하지 못했고, 실습경험은 있지만 동일한 실습기간이나 일정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이 아니라는 점도 반영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요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제적인 실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습내용, 평가방식, 지도방식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표준화된 실습 메뉴얼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실습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선하여 실습 후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충청지역 소재 대학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행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766부를 SPSS/Win18.0을 사용하여 최종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교내·외 실습경험군은 각각 59.7%, 57.4%이었고, 실습 장소는 치과대학 병원, 병(의)원급, 보건소 순이었다. 학제의 경우 4년제가 3년제 보다 실습내용, 실습시간, 실습수행 요인에서 교내 실습만족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실습시간 요인에서 교내 실습만족도가 높았다. 교외 실습만족도는 4년제가 3년제보다 모든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실습시간과 실습수행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교내·외 실습경험에서 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실습수행, 실습시간, 실습환경, 실습내용 모든 요인이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외 실습교육을 통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임상실습이 최적의 학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HN Lee, HS Shim, GY Kim. "Association of quality of dental care service on the Level of patient satisfaction",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1, No.3, pp.383-393, 2011.
- [2] YJ Kang. "A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J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Vol.9, No.1, pp.73-84, 2009.
- [3] YS Kim, YS Kim. "A study about th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clinical training places", J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34, No.4, pp.543-552, 2010.
- [4] IS Park. "A Comparative Study on Satisfaction Level with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y Educational System",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1, No.2, pp.85-90, 2011.
- [5] YS Kim.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Regarding Achievement Clin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e", J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13, No.1, pp.147-160, 2000.
- [6] MY Hwang. "A Study on the Curriculums for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Based on the Tasks of Hygienists and the Causes For the Nat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Vol.20, No.2, pp.123-142, 2002.

- [7] GY Choi, BO Choi, HS Choe. "A Study of Curriculum Changes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Colleges", J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9, No.3, pp.85-106, 2010.
- [8] YM Lee. "Factors Related to Clinical Laboratory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Clerkship",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3.
- [9] YH Kwon, OG Kwag.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the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10, pp.4572-4581,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0.4572>
- [10] KS Kim, MS Yu.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 Practice Performance as Dental Hygienist",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4, No.3, pp.111-115, 2004.
- [11] YS Kang, SK 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7, pp.3301-330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7.3301>
- [12] KH Kim,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 of Counseling, Vol.1, No.1, pp.7-20, 2000.
- [13] SS Choi.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2, pp.759-767,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2.759>
- [14] MY Park.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6, No.4, pp.243-249, 2006.
- [15] JS Yang.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ospital by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24, No.3, pp.205-215, 2000.
- [16] BJ Chang, KH Song.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Korean Society Hygienic Sciences, Vol.11, No.1, pp.81-90, 2005.
- [17] SM Park, ES Choi. "Influencing Factors on the Satisfaction of the Paramedic Students in Clinical Training", J of Korean Society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16, No.1, pp.91-101, 2012.
- [18] IS Park, SH Lee.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 Dutie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7, No.4, pp.295-302, 2007.
- [19] JR Park. "Characteristics juni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and their attitude on clinical train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92.
- [20] SM Lee, SH Kim. "Effect of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professional identity",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1, No.2, pp.189-196, 2011.
- [21] SS Kim, EK Go.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of Educ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6, No.2, pp.139-145, 2006.
- [22] SA Kim, HJ Moon, EY Choi. "Dental hygiene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Vol.6, No.1, pp.11-23, 2004.
- [23] MH Jang, JH Kim, KS Ah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the time of offering pre-clinical practicums and dental experience to participation attitude, stress and satisfaction", J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Vol.13, No.1, pp.21-29, 2013.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3.13.1.021>
- [24] KS Baek, AR Song, YH Kim, YK Kim.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level with PBL-based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utonomy and achievement motivation", J East-West Nurs Res, Vol.13, No.2, pp.92-106, 2007.
- [25] KE Park, SE Lee. "A Correlatio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Vol.20, No.2, pp.83-96, 2002.
- [26] MH Jang, JH Kim. "Influencing factors on attitude,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J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Vol.14, No.3, pp.407-415, 2014.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3.407>
- [27] JJ Kim, SH Ka. "Exploring learning experi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student-teacher practicum settings", J Korean Educ Review, Vol.19, No.1, pp.113-137, 2013.
- [28] HY Koo, HS Im.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J of Korea Contents Society, Vol.13, No.1, pp.311-321,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1.311>
- [29] SJ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6, No.1, pp.132-146, 2000.

- [30] WJ Park, JY Han.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367-377,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365>
- [31] MY Hwang. "A Study of connections between the curriculum involved in dental hygiene and clinical practice",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Vol.17, No.2, pp.137-149, 1999.
- [32] YS Kim.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regarding achievement of clin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e", J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Vol.13, No.1, pp.147-160, 2000.
- [33] JS Yang.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dental hospital by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Dental Health, Vol.24, No.3, pp.205-215, 2000.
- [34] SG Kim, YK Koo, MA Jeo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Korea Contents Society, Vol.12, No.8, pp.248-255,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8.248>
- [35] IO Moon, G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83-91, 2010.
- [36] NK Kim.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s in Nursing", A-ju University, 2012.
- [37] SK Lee. "Korean college students vocation identity :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career-related variables",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19, No.1, pp.141-154, 2006.
- [38] HS Lee, JS Noh, JJ Cha, SR Kim, SK Kim, SG Park, SJ Sim, JH Lee, MS Chu. "The change of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through the field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18, No.1, pp.107-120, 2010.
- [39] BA Christie, PC Joyce, PL Moeller. "Fieldwork experience, Part II: The supervisor's dilemma", American J of Occupational Therapy, Vol.39, No.10, pp.675-681, 1985.
DOI: <http://dx.doi.org/10.5014/ajot.39.10.675>
- [40] HC Cho. "A Study on the Change of Vocational Identity and Matur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Job Stress During the Secondary School Student Teaching Program", J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t of Teacher Education, Vol.22, No.3, pp.243-262, 2005.
- [41] JS Choi. "Comparison of Perceptions about Teaching Practices by Student Teachers Before and After Practice Teaching", J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26, No.4, pp.113-123, 2005.
- [42] MH Su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8, No.1, pp.18-24, 2012.
- [43] JA Kim. "Affecting Factors of Career Satisfaction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 of Korea Contents Society, Vol.13, No.4, pp.339-349,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6.339>
- [44] MK Jeong, JY Lee.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2 No.6, pp.1241-1249, 2012.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2.12.6.1241>
- [45] IS Park, SH Lee.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 Dutie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7, No.4, pp.295-302, 2007.
- [46] BJ Chang, KH Song.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1, No.1, pp.81-90, 2005.

문 선 정(Seon-Jeong Moon)

[정회원]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석사)
- 2010년 8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예방치학, 치주학, 구강해부학

구 인 영(In-Young Ku)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석사)
- 2012년 2월 : 영남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교육학

최 화 영(Hwa-Young Choi)

[정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석사)
- 2013년 2월 : 경희대학교 치의학과 (영상치의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구강방사선학, 예방치학

가 경 환(Kyung-Hwan Ka)

[정회원]



- 1999년 2월 : 용인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5년 2월 : 세종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론, 연구방법론